상상인 Chemical Watch

Analyst 백영찬 | 화학/에너지
02-3779-3609, yc.baek@sangsanginib.com

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더 많은 리포트 찾아보기

중동 정유/가스 설비 복구 비용 250 억달러 이상

주간 정유/화학 뉴스

1) 글로벌 에너지 CEO들 고유가 장기화 전망. 아시아 지역에서 연쇄적인 연료 부족 현상 나타나고 있으며 4월에는 유럽까지 확산될 가능성 제기 (2026.03.29/파이낸셜뉴스)

2) HS효성첨단소재와 베인캐피탈,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부 매각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견 좁히지 못하며 장기 교착 상태 (2026.03.30/이투데이)

주간 신재생 뉴스

1) 중국,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산업의 출혈 경쟁 단속. 알고리즘 통제, 원가 이하 판매, 중소기업 대금 지연 등을 시장 경쟁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 (2026.03.30/아시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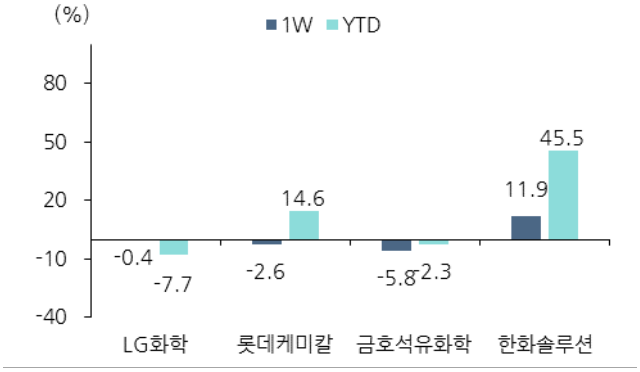
2) LG에너지솔루션, 엘앤에프 등 주요 배터리 양극재 업체 대상으로 LFP 양극재를 공급받기 위한 협의 착수 (2026.03.31/디지털데일리)

3) 한화큐셀, 미국에서 건설단계부터 태양광 설치, 유지보수까지 내재화한 통합솔루션 출범.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으로 사업 확대할 계획 (2026.04.01/연합뉴스)

[상상인 입장에서 보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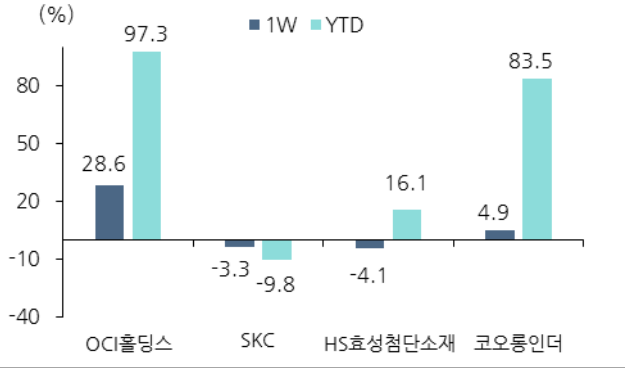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파괴된 정유/가스 설비 복구 비용은 250억달러 (35조원) 이상 추정. 현재까지 드론 피해 등으로 가동 중단된 정유설비는 206만b/d, 천연가스 설비는 South Pars 등 4개 설비임. 이는 **정유와 LNG 생산능력 기준 각각 1.4%, 15% 수준**임. Rystad Energy에 따르면 중동전쟁에 따른 피해 복구 비용으로 250억달러 수준이며 향후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함. 현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1) 전쟁 종료 후에도 당분간 고유가 지속 가능성이 높고, 2)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설비 복구/재건 수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국내 화학/태양광 기업 주간/연초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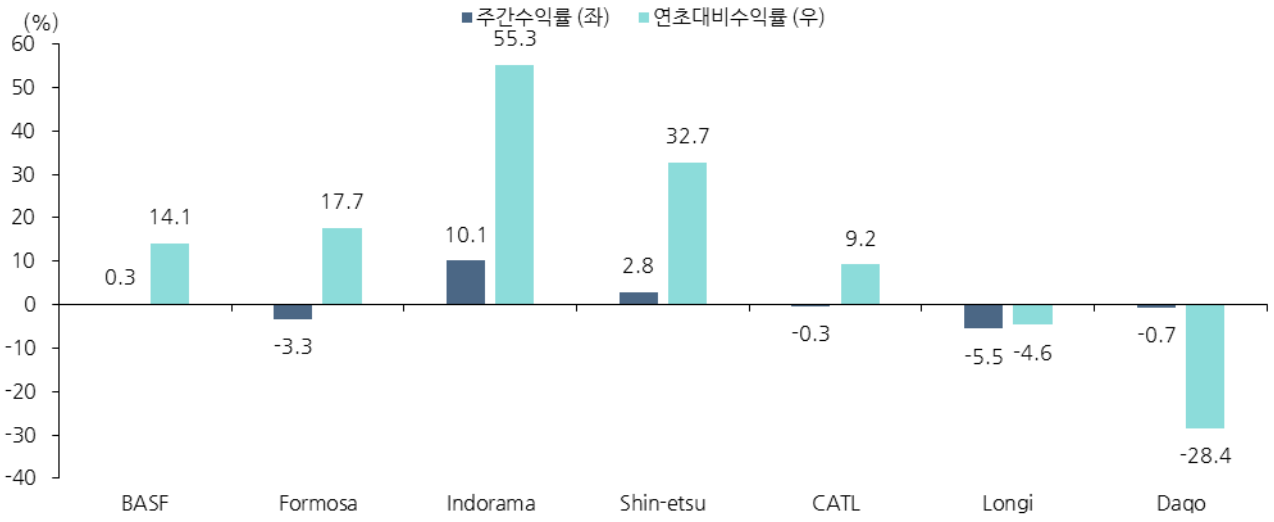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그림 2. 국내 화학/태양광 기업 주간/연초대비 수익률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그림 3. 해외 화학/태양광 기업 주간/연간 수익률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주석: 해외 종목은 전일 종가 기준 수익률 산출

표 1. 국내 및 글로벌 화학기업 주가 추이

	Currency	주가	상승률 (%)						P/E (X)		P/B (X)		EV/EBITDA (X)	
* 국내기업		4월 3일	1W	1M	3M	6M	1Y	YTD	26E	27E	26E	27E	26E	27E
LG화학	KRW	304,500	-0.4	-11.6	-5.1	10.6	37.6	-7.7	393.7	14.8	0.7	0.7	7.5	5.3
롯데케미칼	KRW	80,100	-2.6	-4.4	19.4	19.9	35.8	14.6	N/A	N/A	0.3	0.3	15.2	10.1
금호석유화학	KRW	118,000	-5.8	-12.5	0.2	11.5	1.8	-2.3	7.9	6.9	0.5	0.5	4.3	3.8
한화솔루션	KRW	39,050	11.9	-13.1	46.4	35.9	96.4	45.5	386.8	15.0	0.8	0.8	14.3	10.0
OCI홀딩스	KRW	229,500	28.6	60.4	114.8	167.5	257.4	97.3	19.1	13.4	1.1	1.0	9.4	7.5
SKC	KRW	94,900	-3.3	-9.1	-9.0	-8.6	-6.6	-9.8	N/A	N/A	3.0	3.2	62.2	29.5
HS효성첨단소재	KRW	210,500	-4.1	-3.4	17.3	17.6	25.9	16.1	16.4	9.8	1.0	0.9	8.2	7.2
코오롱인더	KRW	81,400	4.9	27.9	94.3	137.7	191.3	83.5	17.0	12.2	0.7	0.6	9.9	9.2
* 해외기업														
BASF	EUR	50.7	0.3	7.5	13.4	16.3	15.5	14.1	20.8	17.1	1.3	1.3	9.7	8.7
Formosa Plastic	TWD	45.9	-3.3	-9.5	19.4	22.4	21.8	17.7	N/A	27.0	1.0	1.0	28.6	19.1
Indorama Ventures	THB	25.0	10.1	19.6	55.3	12.3	29.0	55.3	24.2	16.2	1.1	1.1	8.8	8.2
Shin-Etsu Chemical	JPY	6,412.0	2.8	2.3	32.7	32.7	54.7	32.7	24.6	22.1	2.7	2.6	13.0	11.6
CATL	CNY	401.2	-0.3	17.9	9.2	-0.2	64.8	9.2	19.5	16.2	4.5	3.8	12.6	10.5
Longi Green Energy	CNY	17.4	-5.5	-4.2	-4.6	-3.6	8.8	-4.6	N/A	53.1	2.2	2.2	81.9	13.7
Daqo New Energy	USD	21.1	-0.7	-11.4	-28.8	-28.5	16.3	-28.4	N/A	17.7	0.3	0.3	5.6	2.9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주석: 해외 종목은 전일 종가 기준 수익률 산출

글로벌 정유/화학 뉴스

"전쟁 끝나도 유가 안 떨어진다"…석유 CEO들의 경고 [파이낸셜뉴스]

전쟁 종료에도 유가는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2026.03.29) 미·이란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국제 유가가 쉽게 안정되기 어렵다는 전망 확산. 글로벌 석유기업 CEO들은 현재 유가 수준조차 실제 공급 불안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전쟁이 촉발한 공급 차질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인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에너지 인프라 피해, 해상 운송 리스크, 보험료 상승 등 공급망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고유가 환경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시각 존재

현재의 유가 수준도 타이트한 수급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

세브론 CEO는 실제 원유 공급 상황이 선물시장 가격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타이트한 상태라고 언급. 시장이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해 반응하면서 실제 공급 리스크가 충분히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 등 물리적 충격이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선물 곡선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항공유, 디젤, 휘발유 순으로 부족 현상 확산될 것

업계에서는 원유보다 정제 제품 부족이 더 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 셸 CEO는 연료 공급망이 원유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며 항공유를 시작으로 디젤, 휘발유 순으로 부족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 이미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연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유럽까지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 제기. 중동 주요 에너지 인프라가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입으며 일부 유전이 생산 중단 상태에 들어갔고, 걸프 국가들이 폐쇄했던 유정을 정상화하는 데 최소 3~4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 여기에 해상 운송 불안과 보험료 상승, 선박 운항 제한까지 겹치며 실제 시장 공급량 감소 가능성 존재

HS효성, 타이어스틸코드 매각 협상 결렬…1조 실탄 조달 '빨간불' [이데일리]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부 매각 지연되는 중

(2026.03.30) HS효성첨단소재의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부 매각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들어간 상황.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베인캐피탈과 약 1년 가까이 협상을 이어왔지만 기업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거래 진전이 제한적인 상태. 스틸코드 사업은 HS효성그룹 전체 이익의 약 40%를 담당하는 핵심 사업으로, 해당 사업 매각을 통해 대규모 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던 그룹의 사업 재편 계획에도 부담이 발생

매각 초기 사업부 가치 1조원에서 현재 5,000억원 미만도 언급

매각 초기에는 사업부 기업가치가 1조원 안팎, 많게는 1조원대 중반까지 거론된 바 있음. 지난해 본입찰에서는 베인캐피탈이 약 9,100억원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그러나 이후 업황과 실적 전망이 악화되면서 매수 측이 판단하는 적정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흐름. 최근에는 7,000억원대 수준이 언급됐고 실제 투자 판단 기준에서는 5,000억원 미만 가격까지 거론되는 상황.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은 완성차 및 타이어 업체 대상 B2B 구조로 물량과 판가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으며, 미국 관세 정책 영향으로 중국, 베트남 생산거점의 대미 수출 환경이 불확실해진 점도 기업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

매각 통해 확보한 현금은 신사업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매각 지연 중

매수 측은 실적과 시장 환경 변화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매도 측은 핵심 캐시카우를 큰 폭의 할인 가격에 매각하기 어렵다는 입장 유지하는 상황. 매각이 지연될 경우 HS효성그룹의

투자 재원 확보 전략에도 영향 가능성 존재. 그룹은 스틸코드 사업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배터리 소재와 AI 등 신사업 투자에 활용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구상을 갖고 있었음. 특히 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 투자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매각 지연은 투자 우선순위 조정이나 추가 자금조달 필요성으로 이어질 가능성

신재생 뉴스

출혈 경쟁에 또 칼 빼든 中…전기차·배터리·태양광 단속한다 [아시아경제]

중국,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의 출혈 경쟁 관리 할 예정

(2026.03.30) 중국 정부가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서 나타난 '내권식(內卷式)' 경쟁을 본격적으로 정비할 방침.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부정당경쟁법 집행을 강화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힘. 알고리즘 통제, 원가 이하 판매 강요, 거래 제한, 중소기업 대금 지연 등 다양한 방식의 불공정 경쟁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제시

특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하청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성급 이상 시장감독 부처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동시에 리베이트나 수수료 명목으로 이뤄지는 부당 거래도 단속 대상에 포함. 플랫폼 기업의 시장 영향력 남용도 규제 범위에 포함되며 검색 순위 조정, 알고리즘 통제, 트래픽 제한, 상품 노출 차단, 비용 인상, 거래 중지 등 다양한 방식의 플랫폼 통제가 문제 행위로 지적

세 산업은 정부 지원 속 기업 수가 급격하게 증가

플랫폼 내 입점 업체에 보조금,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사실상 원가 이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 중국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산업은 정부 지원 속에 기업 수가 급격히 늘면서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저가 경쟁이 심화된 상황.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와 판매상들의 자금난이 확대되고 중국발 과잉 생산이 글로벌 시장 갈등 요인으로도 지적. 실제로 지난해 중국 자동차 산업 판매이익률은 4.1%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하며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 기록

'LFP ESS 수요 급증' LG엔솔…韓 양극재 조달 추진 '반짝' [디지털데일리]

LG엔솔 , LFP 양극재 조달 추진 중

(2026.03.31)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용 양극재 조달 가능성을 검토.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일환. 엘앤에프 등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LFP 양극재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 연간 3만톤 이상 조달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

OBBBA 내 PFE 규제로 인해 비중국 소재 필요성 대두

LFP 배터리는 삼원계 대비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 경쟁력과 수명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배터리. 다만 현재 생산과 공급이 중국 업체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소재, 부품, 장비 의존도가 높은 분야. LG에너지솔루션은 그동안 상주리원, 화유코발트 등 중국 업체들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등 제3국에서 생산된 양극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급망을 구성해 왔음. 이를 통해 미국 정책인 OBBBA(감세법) 내 금지외국기관(PFE) 규제를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PFE 비중 제한이 2025년 40%에서 향후 2030년 15%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라는 점이 공급망 전략 재검토의 배경

다만 국산 LFP 양극재 조달은 제한적인 상황

동시에 미국 내 ESS 수요 확대도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ESS용 LFP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 홀랜드 공장뿐 아니라 랜싱 공장, 혼다 합작 공장, 캐나다 넥스트스타 에너지 공장 등으로 ESS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어 비중국산 소재 수요 역시 증가하는 흐름.

다만 국내 양극재 공급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현재 양산에 들어간 업체는 엘앤에프가 사실상 유일하지만 초기 생산능력 연 3만톤이 삼성SDI에 배정되어 있어 LG에너지솔루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움. 포스코퓨처엠 역시 LFP 양극재 생산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CNGR 합작 생산능력 상당 부분이 삼성SDI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고, 포항 생산라인 역시 초기 생산 단계로 전체 수요 대응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건설단계부터 태양광설비 내재화…한화큐셀, 美서 '뉴홈즈' 출범 [연합뉴스]

주택 건설부터 설치,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통합 서비스 출시

(2026.04.01)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미국 신규 주택 시장을 겨냥한 재생에너지 통합 솔루션 사업 '큐셀 뉴홈즈(Qcells New Homes)' 출시. 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하는 단계부터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합 설계할 수 있도록 설계, 인허가, 기자재 조달, 설치 지원,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 기존 주택 완공 이후 태양광을 추가 설치하는 방식과 달리 주택 설계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설루션을 포함시켜 비용 효율성과 시공 편의성을 높이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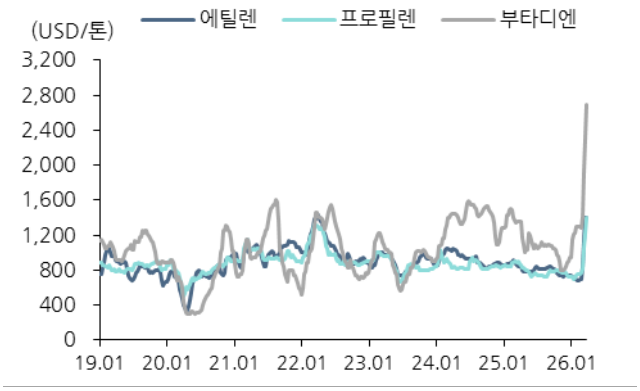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 점차 확대 해나갈 계획

사업은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 캘리포니아는 주택 수요가 높지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며 2020년부터 신규 주택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정책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시장. 이러한 정책 환경을 기반으로 신규 주택에 태양광 및 ESS를 기본 인프라 형태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

태양광 금융사업과 결합한 시너지 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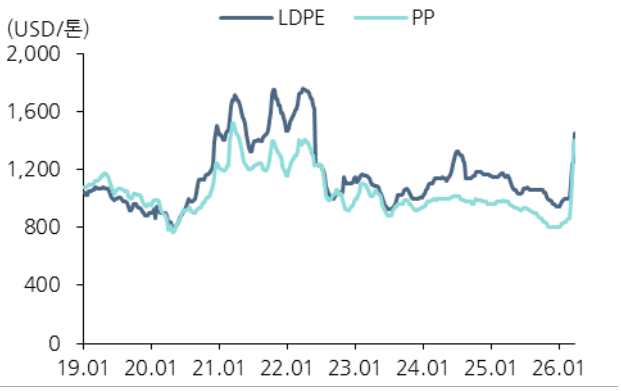
한화큐셀은 미국 내 태양광 제조 역량과 주택용 태양광 금융사업 '엔핀(EnFin)'을 결합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 건설사는 뉴홈즈 파트너십을 통해 태양광 모듈과 ESS 등 하드웨어 공급뿐 아니라 EPC 지원, 금융 설루션, 장기 모니터링 서비스까지 일괄 제공받는 구조. 신규 주택 시장에서 태양광과 ESS를 기본 설비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전략적 사업 모델

그림 4.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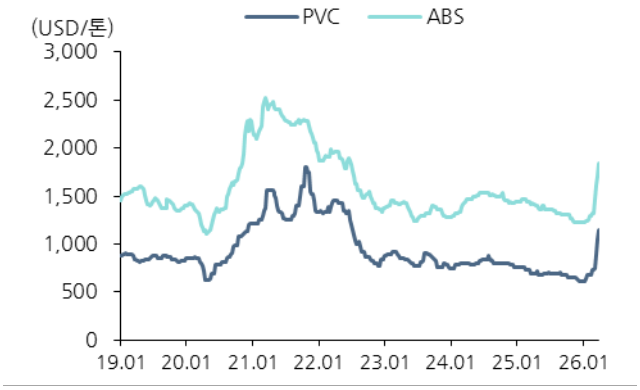
자료: 씨스켐, 상상인증권

그림 5. LDPE 및 PP 가격



자료: 씨스켐, 상상인증권

그림 6. PVC 및 ABS 가격



자료: 씨스켐, 상상인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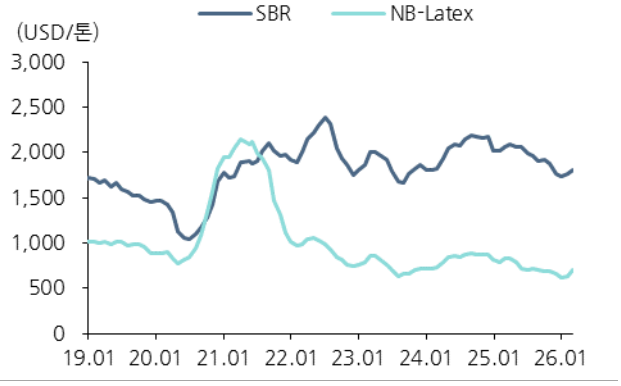
그림 7. PX 및 TPA 가격

자료: 씨스켐, 상상인증권

그림 8. MEG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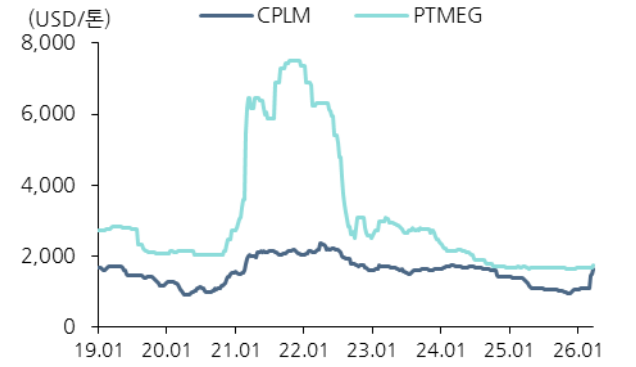
자료: 씨스켐, 상상인증권

그림 9. SBR 및 NB-Latex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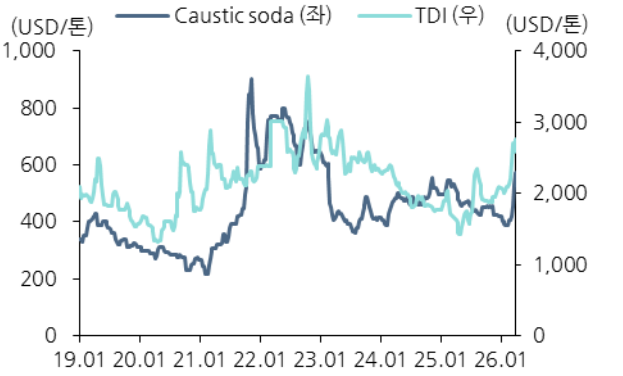
자료: KITA, 상상인증권

그림 10. CPLM 및 PTMEG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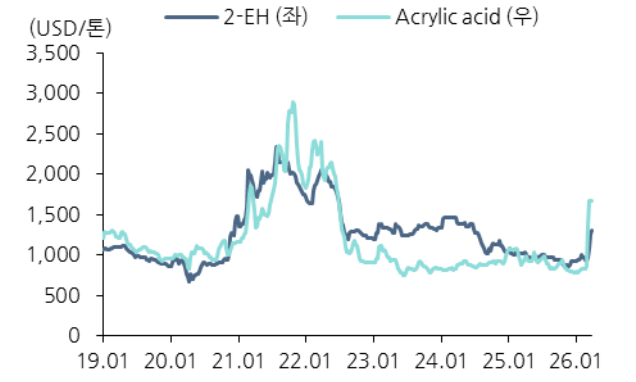
자료: 씨스켐, 상상인증권

그림 11. Caustic soda 및 TDI 가격



자료: 씨스켐, 상상인증권

그림 12. 2-EH 및 Acrylic acid 가격



자료: 씨스켐, 상상인증권

그림 13. 면화 및 천연고무 가격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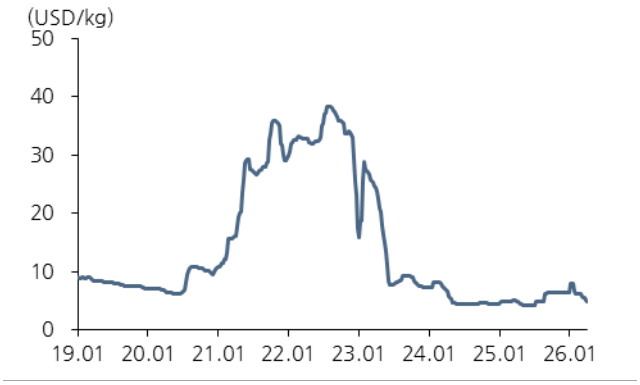
그림 14.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그림 15. 금 및 구리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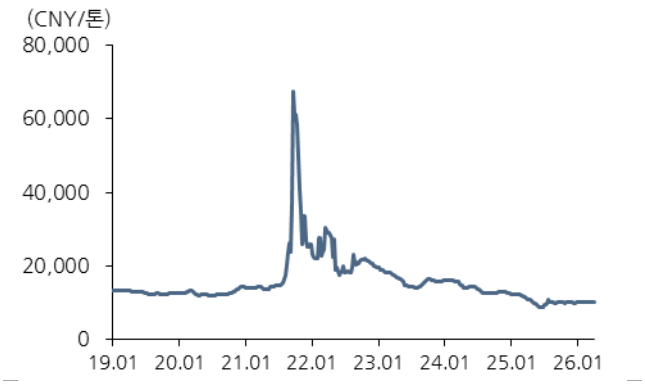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그림 16. 폴리실리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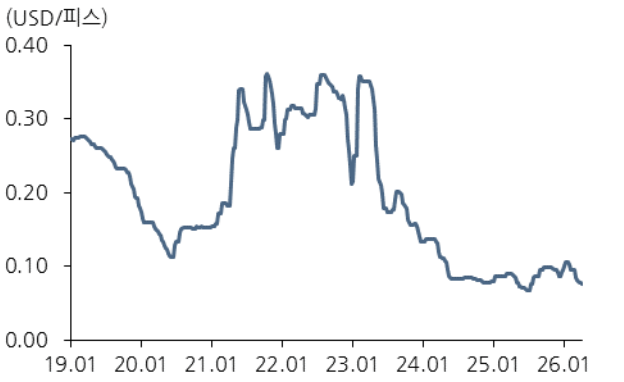
자료: PVinsight, 상상인증권
주석: PV Grade Polysilicon 기준

그림 17. 메탈실리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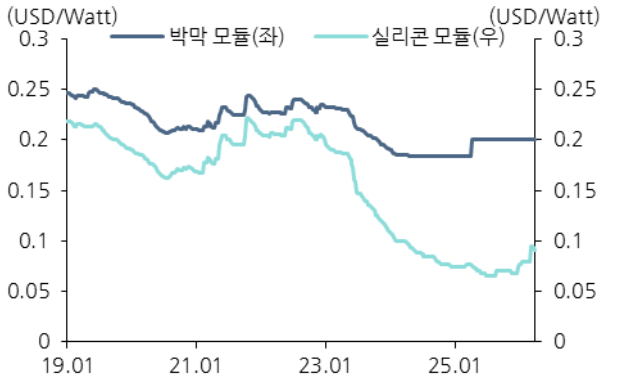
자료: PVinsight, 상상인증권
주석: China Shanghai Changjiang Silicon Metal Spot Price 기준

그림 18. 웨이퍼 가격



자료: PVinsight, 상상인증권
주석: Multi 156mm Wafer 기준

그림 19. 태양광 모듈 가격



자료: PVinsight, 상상인증권
주석: Thin-Film PV Modules, Crystalline Silicon PV Modules 기준

표 2. 주요 화학 제품 가격 및 스프레드 동향

	Price	상승률 (%)					
	2026-03-30	1W	1M	3M	6M	1Y	YTD
나프타	1,135.0	-4.8	+77.1	+109.4	+85.5	+75.2	+111.0
Ethylene	1,400.0	+0.0	+100.0	+89.2	+71.8	+64.7	+89.2
Propylene	1,400.0	+14.3	+83.0	+94.4	+77.2	+60.9	+94.4
Butadiene	2,700.0	+17.4	+109.3	+187.2	+157.1	+100.0	+187.2
O-X	1,305.0	+0.4	+43.4	+69.5	+60.1	+31.8	+69.5
P-X	1,235.0	-0.4	+32.8	+38.8	+52.5	+46.2	+39.2
LDPE	1,445.0	+15.1	+43.8	+52.9	+37.0	+25.1	+52.9
L-LDPE	1,495.0	+13.7	+67.0	+79.0	+59.9	+43.1	+79.0
HDPE	1,255.0	+11.6	+46.8	+52.1	+46.8	+43.4	+52.1
PP	1,405.0	+6.0	+62.4	+74.5	+62.4	+44.1	+74.5
PVC	1,145.0	+8.5	+55.8	+86.2	+69.6	+64.7	+86.2
ABS	1,845.0	+7.6	+39.2	+50.6	+41.4	+29.5	+50.6
MEG	617.5	-1.6	+38.0	+42.8	+20.5	+17.1	+38.0
2-EH	1,310.0	+4.0	+42.4	+42.4	+39.4	+29.1	+41.6
Acrylic acid	1,680.0	+0.9	+93.1	+112.7	+89.3	+80.6	+111.3
TPA	875.0	-2.2	+29.6	+33.6	+42.3	+35.7	+34.6
TDI	2,760.0	+6.6	+24.9	+32.4	+44.9	+67.8	+32.7
	Spread						
Ethylene	759.0	-3.6	+651.5	+343.9	+246.6	+305.9	+328.8
Propylene	759.0	+24.0	+357.2	+402.6	+291.2	+266.7	+383.4
Butadiene	2,059.0	+22.1	+198.0	+455.0	+353.5	+199.7	+446.2
O-X	664.0	-3.3	+113.5	+230.3	+203.2	+103.1	+220.8
P-X	594.0	-5.3	+79.5	+85.0	+177.6	+226.4	+83.1
LDPE	804.0	+25.2	+98.0	+113.8	+75.2	+63.4	+110.5
L-LDPE	854.0	+21.7	+188.5	+221.1	+151.9	+123.6	+214.0
HDPE	614.0	+19.9	+139.8	+139.8	+137.1	+189.6	+134.4
PP	764.0	+7.3	+187.2	+223.7	+184.0	+144.9	+215.7
PVC	504.0	+14.0	+270.6	+995.7	+538.0	+1475.0	+869.2
ABS	763.5	+16.9	+212.7	+120.6	+151.2	+211.9	+140.2
MEG	136.8	-18.5	+7914.3	+2278.3	+108.8	+352.1	+441.6
2-EH	669.0	+3.4	+108.4	+90.6	+94.5	+90.1	+84.8
Acrylic acid	1,039.0	-1.2	+283.4	+370.1	+256.4	+289.1	+347.8
TPA	251.9	-11.2	+306.6	+154.7	+497.6	+316.9	+200.4
TDI	1,713.9	+11.0	+45.6	+52.4	+82.7	+217.6	+53.1

자료: 씨스켐, 상상인증권
주석: 스프레드- ABS는 AN/BD/SM 기준, TPA는 P-X 기준, TDI는 Toluene 기준, 나머지 제품 군은 모두 Naphtha 기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백영찬)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구분	투자의견 기준 및 기간	투자등급	투자의견 비율	비고	구분	투자의견 기준 및 기간	투자등급	투자의견 비율	비고
산업 (Industry)	**투자등급 3단계** 향후 12개월 시장대비 상대수익률	Overweight (비중확대)	84.6%	시가총액 대비 비중확대	기업 (Company)	**투자등급 3단계** 향후 12개월 절대수익률	BUY	92.5%	절대수익률 15% 초과
		Neutral (중립)	15.4%	시가총액 수준 유지			HOLD	7.5%	절대수익률 +15%~ -15%
		Underweight (비중축소)	0.0%	시가총액 대비 비중축소			SELL	0.0%	절대수익률 -15% 초과
			합계 100%					합계 100%	